

한국산업인력공단 X EBS 특집 다큐멘터리 < 직업대학 미래학과 >

- 인공지능으로 인해 달라지는 새로운 직업과 역할 조명
- “10년 만에 녹음한 광희, 절친 매니저와 손절한 사연은?”
- “여경래 셰프와 AI로봇의 요리 대결 승자는?”

대중문화부터 농업까지 산업 분야 전방위에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기술,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EBS가 뭉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과 EBS는 11월 30일과 12월 7일, 특집 다큐멘터리 ‘직업대학 미래학과’를 제작·방영한다.

대중문화 산업부터 농업까지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직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탐색 후,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직업대학 미래학과’ 다큐멘터리는 **1부 딥보이스**(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탄생 시키다), **2부 AI로봇**(인간의 식탁을 책임지다)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음성합성 기술인 ‘딥보이스(딥러닝과 목소리의 합성어)’ 기술을 중심으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진 외식업계 및 농촌을 중심으로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로봇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집 다큐멘터리 ‘직업대학 미래학과’ 1부는 11월 30일 토요일 15시 EBS 1TV, 2부는 12월 7일 토요일 15시 EBS 1TV에서 방송된다.

※ 잡플러스TV(www.youtube.com/@jobplusTV)와 EBS 다큐 채널(www.youtube.com/ebsdocumentary)에서 동시 공개되며, 향후 EBS 2TV 및 PLUS2에서도 방송될 예정임

이우영 이사장은 “명품 특집 다큐멘터리와 같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단은 미래 산업변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책임자	부 장	윤명섭 (052-714-8190)
		담당자	과 장	김은주 (052-714-8197)



1부 딥보이스,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탄생시키다.

1부에서는 딥보이스란 딥러닝과 목소리의 합성어로 AI 기반 음성합성 기술인 ‘딥보이스’ 기술을 중심으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대중문화 산업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AI 아이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는 AI 아나운서. 그리고 범죄에 이용되는 AI를 잡는 AI 수사까지. 딥보이스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직업과 인류의 역할에 대해 15년 차 아이돌 가수 광희, 20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 이광용, 국내 최고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같이 탐구해 본다.

2부. AI로봇, 인간의 식탁을 책임지다.

2부에서는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코로나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진 외식업계에서는 최근 로봇 셰프의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로봇 셰프의 등장으로 기존 주방 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건비 절감과 일자리 축소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과연 주방에 등장한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일까. 그리고 로봇은 인간의 요리 실력을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중식대가 여경래 셰프를 통해 로봇 셰프의 미래를 알아본다. 또한 비단 우리 먹거리는 주방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데. 고된 노동강도와 도시집중 인프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또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로봇농부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의 농부는 과연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농업전문기자 정혁훈 기자와 함께 미래의 스마트팜에 대해 탐구해 본다

참고

방송 포스터

